

새한, 수처리 필터 시장 세계 3위!

구미 역삼투필터 설비 800만m² 증설 ... 2007년 매출 9000만달러 목표

새한이 12월4일 구미공장에서 역삼투필터 생산설비 증설 준공식을 가졌다.

국내 유일의 역삼투압 필터 생산기업인 새한은 역삼투분리막 생산능력을 기존 200만평만미터에서 800만평방미터로 4배 확대함으로써 미국 Dow Chemical, Hydranautics에 이어 세계 3위로 부상했다.

새한의 구미공장 증설 준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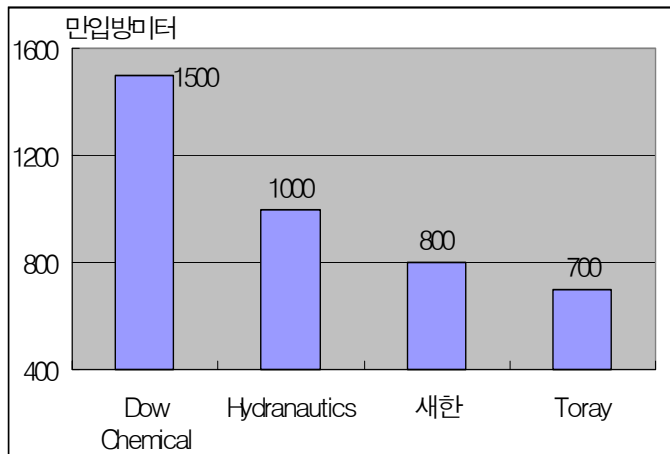
새한은 1994년 국내 최초로 역삼투필터를 개발했으며 현재 정수기 등 가정용 시장에서는 80% 이상을, 각종 공정의 공정용수에 사용되는 산업용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2003년 3월에는 미국수처리협회(AWWA)의 막기술협의회에서, 미국 수처리엔지니어링 컨설팅기업인 MWH(Montgomery Watson Harza)가 새한의 역삼투분리막 제품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품질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세계 역삼투필터 시장은 4억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새한은 앞으로 미국, 중동, 유럽 등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2004년 4000만달러, 2007년에는 9000만달러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케팅을 전개해 2004년 4000만달러, 2007년에는 9000만달러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세계 역삼투필터 생산능력 비교



<Chemical Journal 2003/12/05>